

# 경제포커스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 영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나 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형호 · 부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younh@sdi.re.kr

## 1. 서론

인적자원개발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조직 및 예산을 운영하여 인력양성 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인적자원개발로 양분될 수 있다. 공공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은 산업수요와 정책목표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훈련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민간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또는 기업단체가 종업원에게 산업현장에 적합한 훈련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적자원개발은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공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산업계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계가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능인력을 적절한 시점에 양성·배출 못하거나 혹은 산업수요가 없는 직종의 인력을 과잉 배출한다는 비효율성을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다.

고용보험 도입 이후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직자가 선택한 공공 혹은 민간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신규양성에 있어서도 산업계 주도로 업계수요를 반영하는 민간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sup>1)</sup> 산업별 기업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은 산업별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현장의 인력수요가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정부는 2005년에 들어 10개 주요 산업에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조흥은행 심사역 차장 역임
-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2) 등

1) 2004년 10월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별 기업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을 서울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형한 업종별 민간주도형 인적자원개발<sup>2)3)</sup>을 서울의 대표적인 地緣산업인 인쇄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 2. 서울시 인쇄업의 현황

### 1) 인쇄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인쇄산업은 도시형 산업으로 2003년 국내전체 사업체의 64.8%, 종사자수의 59.9%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어 대표적인 地緣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매출액 역시 전국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특정부문의 업종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지역별 특화산업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 인쇄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다.<sup>4)</sup>

〈표 1〉 서울시 인쇄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소/명)

구 분	전 국		서 울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8	16,417	63,151	10,257	72,088
2001	18,198	72,635	11,657	88,174
2003	2,587	70,793	1,677	42,426

자료: 통계청<sup>5)</sup>

〈표 2〉 서울시 인쇄업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전국	4,145,173	4,619,457	5,273,924	4,935,707
서울	2,805,307	3,228,037	3,719,960	3,452,277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

서울의 제조업 가운데 인쇄업 사업체 비중은 18.1%, 고용비중은 19.7%, 부가가치에 의한 생산비중은 14.5%로 위상이 매우 높다. 한편 서울의 고용비중 19.7%는 전국의 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인쇄업이 특히 고용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업종별」은 「산업별」과 동일한 의미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산업별」은 조선, 자동차, 전자와 국가의 중추기간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업종별」은 의류, 인쇄, 귀금속업 등 주로 중소기업 업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업종별(혹은 산업별) 기업주도형 인적자원개발체계는 (최영섭, 정진화 2003)에 의해 자세히 논의되었다.

4) 서울시는 서울인쇄센터를 설립하였고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5) 2003년 사업체 구분별 통계자료는 회사법인에 한하여 조사된 것임

〈표 3〉 서울시 제조업 중 인쇄업의 산업비중(2003)

단위: 개소/명/백만원

구분	사업체비중(%)	고용비중(%)	생산비중(%)
서울	18.1	19.7	14.5
전국	5.3	3.30	1.2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 광공업통계

## 2) 인쇄업 인력부족

인쇄업은 노동강도가 높아 신규 기능인력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쇄업체의 인력난 상황은 단순기능 인력과 다기능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의 현실을 보면 인력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인쇄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기술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기능직(4.24%)과 기술직(1.77%)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인쇄업의 인력 부족률 현황(2003)

구분		전국	서울
전체	현재인원	92,896	54,847
	부족인원	2,862	913
	부족률	2.99	1.64
사무관리직	현재인원	33,386	22,920
	부족인원	259	82
	부족률	0.77	0.36
전문가	현재인원	9,421	7,075
	부족인원	411	137
	부족률	4.18	1.9
기술직 및 준전문가	현재인원	17,739	11,378
	부족인원	440	205
	부족률	2.42	1.77
기능직	현재인원	15,057	6,708
	부족인원	779	297
	부족률	4.92	4.24
단순노무직	현재인원	11,151	3,145
	부족인원	717	0
	부족률	6.04	0

자료 :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3.인쇄업의 인적자원개발 클러스터

#### 1) 인쇄업의 인적자원개발 기관

##### (1) 인쇄사업체

서울시 인쇄업의 사업체는 2003년 현재 11,212개소, 종사자는 82,808명으로 제조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분포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54.39%), 종로구(6.18%), 마포구(5.80%), 영등포구(4.68%), 강남구(4.6%) 순으로, 도심지역(종로구, 중구)에 인쇄업체의 60.57%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종사자의 분포는 중구(33.24%), 종로구(15.04%), 마포구(8.56%), 강남구(6.48%), 성동구(5.51%)순으로, 전체의 48.24%가 도심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표 5> 인쇄업 권역별 사업체·종사자 규모(2003)

(단위: 개소/ 명)

권역별	구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1,212	100.0(%)	82,808	100.0(%)
도심	종로구	693	(6.18)	12,451	(15.04)
	중구	6,098	(54.39)	27,523	(33.24)
	용산구	329	(2.93)	3,290	(3.97)
동북	성동구	395	(3.52)	4,565	(5.51)
	광진구	114	(1.02)	630	(0.76)
	동대문구	151	(1.35)	724	(0.87)
	중랑구	59	(0.53)	219	(0.26)
	성북구	95	(0.85)	492	(0.59)
	강북구	37	(0.33)	242	(0.29)
	도봉구	25	(0.22)	165	(0.20)
	노원구	32	(0.29)	265	(0.32)
서북	은평구	67	(0.60)	448	(0.54)
	서대문구	169	(1.51)	1,016	(1.23)
	마포구	650	(5.80)	7,085	(8.56)
서남	양천구	88	(0.78)	898	(1.08)
	강서구	124	(1.11)	986	(1.19)
	구로구	131	(1.17)	1,302	(1.57)
	금천구	187	(1.67)	3,772	(4.56)
	영등포구	525	(4.68)	3,885	(4.69)
	동작구	79	(0.70)	1,059	(1.28)
	관악구	105	(0.94)	1,142	(1.38)
동남	서초구	319	(2.85)	3,491	(4.22)
	강남구	516	(4.60)	5,369	(6.48)
	송파구	150	(1.34)	1,332	(1.61)
	강동구	74	(0.66)	457	(0.5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2003)

서울시 인쇄사업체의 평균고용 인원은 7.4명으로 영세하고 특히 도심의 평균인원은 6.1명으로 더욱 영세하다. 비교적 큰 규모가 위치한 금천구, 영등포, 구로구를 포함하는 서남권의 평균인원은 10.5명이다.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편집, 제판, 인쇄, 제작을 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분업화하여 하게 된다. 이러한 분업화 때문에 수평적으로 연계된 사업자들이 도심에 집중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인쇄업은 중구, 특히 쌍림동 인근에 집적이 되어 있고 관련 협회 역시 대부분 쌍림동 인쇄센터 빌딩에 입주하고 있다. 인쇄업이 도심에 집적된 것은 대형 수요자인 일반회사, 관공서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고 집적의 형태는 편집, 제판, 인쇄, 제본, 종이 등 원부자재, 인쇄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는 사업체들의 수평적인 연계와 협력이다. 집적된 공간에 위치한 관련 사업체들은 공식 및 비공식 접촉과 정보교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상품 및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 업종별 인력정보 등에서 집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된다.

## (2) 인쇄업계 지원기관

인쇄업계의 지원기관으로 사업자들이 결성하여 공동사업,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협회, 조합,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지원기관은 주로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인쇄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때로는 정부기관 및 서울시와 연계사업을 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1948년에 설립된 가장 오랜 기관으로 현재 월간 프린팅 발간 등의 연구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설립이 되었고,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인쇄업계의 가장 큰 조직이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현재 인력양성사업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특히 1993~1999년까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여 읍셋인쇄 238명, 사진제판 213명을 양성하였다. 이후 인쇄업의 세부분야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동조합과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이 분리·설립되어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조합들은 원부자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공동구매,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단체수계약 등의 회원사의 공동이익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회원사간 혹은 회원사와 조합간 일정부분 네트워킹 형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인쇄업 조합 및 협회 현황 및 사업

협회	설립연도/주소	사업내용
대한인쇄문화협회	1948 마포구 서교동352-26	인쇄신문발행, 월간 '프린트코리아' 발행, 조사, 전시, DB 구축, B2B 사업
한국스크린 인쇄공업협회	1983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연 2회 산학교류 및 회의, 신기술 신제품 소개 세미나 및 교육, 기술인력부족 해소방안, 한중일 업계교류, 월간 '스크린 인쇄기술정보' 발행
대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	1962 중구 쌍림동 146-1	공동구매/판매, 수출진흥사업, 조사, 연구, 교육
한국스크린인쇄공 업 협동조합	1985 관악구 신림8동 1666-6	계간 '스크린인쇄' 발행, 기술정보 수집, 세미나개최 해외교류, 조합원 경영실태조사, 공동구매/판매
대한인쇄연구소	1992 중구 쌍림동 146-1	연구사업. 교육사업: 세미나/포럼, 전문인력양성, 편찬사업: 실무 서적, 교재. 연구자료, 조사분석: 인쇄업 운영실태분석, 기자재 성능분석, 산학연 협력사업, 정보수집, 제공
서울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1962 중구 쌍림동 146-1	공동구매/판매, 수출진흥사업, 조사, 연구, 교육, 조합전산망, 기능인력양성
한국화상정보 제판공업협동조합	1985 중구 충무로	공동구매/판매, 잡지 '프리프레스' 제작, PIN 사업, 디지털 인력 양성
대한인쇄기술 정보협회	2004 중구 쌍림동 146-1	인쇄산업기반조성: 정보 및 네트워크, 인력양성, 기술개발사업: IT 융복합화 기술개발, 발간사업: 인쇄통계, 인쇄기술편람, 교육사업: 세미나/포럼, 국제교류
서울인쇄센터	2001 중구 쌍림동 146-1	수출지원산업, 제품 홍보사업, 인력양성사업, 경영애로 실태 조사, 디자인개발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1992년 민간기관인 인쇄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업계의 실태 및 기술 조사와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서울시는 인쇄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서울인쇄센터(재)를 설립하였고, 서울시는 매년 이 센터에 출연하여 서울시 인쇄업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업계는 인쇄업에 정보통신의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쇄정보기술협회를 창설하였다. 2004년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가 인쇄 및 관련업계, 인쇄학과와 인쇄언론계가 참여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는 산학연 협의체로서 정보교류와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공동번영과 화합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한인쇄연구소와 대한인쇄기술정보협회는 산업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해 인쇄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합 및 협회의 인력양성 사업을 보면,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고등학생 해외연수, 고용보조금, 산학연 포럼 등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은 KT, 민간기관, 신구대학과 함께 디지털인쇄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활용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3) 인쇄 교육 및 인력양성기관

인쇄와 관련된 민간전문학원은 거의 없고 교육기관 또는 공공직업훈련기관만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의 수 역시 많지 않다. 더욱이 서울시에 소재한 민간학원들은 편집 혹은 광고출력 부문만을 교육시키고 있어 업계가 필요한 인쇄기능인 양성과는 무관하다. 인쇄사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쇄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민간전문학원이 없는 것은 인쇄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교육수요자가 기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6)</sup>

서울에는 인쇄교육 관련 2개의 공업고등학교가 있고 교과과정은 인쇄일반, 평판인쇄, 컴퓨터그래픽, 전자출판, 사진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과정에는 인쇄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평판인쇄가 포함되어 있어 미래의 인쇄기능인을 양성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문대학으로는 신구대학, 인천전문대학, 정수기능대학의 인쇄과 또는 인쇄매체학과가 있다. 이들 2년제 대학의 과정은 인쇄공학, 제판, 평판인쇄, 색채관리, 스크린인쇄, 전자출판인쇄기계, 디지털인쇄 등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평판인쇄에 관한 교육은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인쇄 교육은 전문성과 장비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은 졸업생들이 업계로 순조롭게 유입되지 않을 뿐더러 유입되더라도 평판인쇄 기능인력 보다 편집, 영업, 기획 인력으로 유입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인쇄학과는 없고 다만 2004년 동국대학교는 인쇄업이 집중된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특화학과로 산업대학원 내에 최고경영자 양성을 위해 인쇄화상전공과를 개설하였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광고인쇄과가 있으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및 스크린 인쇄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에 평판인쇄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있는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인 대상 인쇄매체공과 역시 전자출판, 디지털사진, 스크린인쇄 분야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인천직업전문학교

6)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 서울인쇄정보공업조합이 운영하는 평판인쇄기능인 양성과정이 있었으나 인쇄기능 지망생이 줄어들고 민간부문에서 재정적으로 담당하기가 어려워 폐교하였다.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역시 전자출판, 웹디자인, 스크린인쇄 등에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은 업계에서 필요한 평판인쇄 기능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스크린인쇄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다.

〈표 7〉 서울 및 인근 인쇄관련 인력양성 기관

구분	교육기관	학과	정원	교육내용
직업전문학교	인천직업전문학교	출판인쇄과	70	인쇄개론, 전자출판, 디지털 사진, 편집디자인, 스크린제판 및 인쇄
	상계직업전문학교	광고인쇄과	40	스크린제판, 사인물 제작, 광고출력, 스크린인쇄, 사진촬영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인쇄매체공과	30	전자제판, 광고출력, 스크린인쇄, 사진촬영
	안산재활훈련원	인쇄매체공과	30	전자조판,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인쇄사진과	55	컴퓨터그래픽, 인쇄일반, 전자출판, 사진기술, 평판인쇄, 그래픽아트과정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인쇄사진과	55	인쇄일반, 인쇄재료, 평판인쇄, 사진기술
전문대학	신구대학	인쇄과	160	디지털인쇄 디지털이미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사진제판, 전자조판
	인천전문대학	화상매체과	80	인쇄공학, 제판공학, 전자출판, 색채관리, 스크린인쇄
	서울정수기능대학	인쇄매체학과	25	인쇄공학, 제판공학, 전자출판, 색채관리, 스크린인쇄, 평판인쇄, 디지털인쇄, 인쇄기계
대학원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인쇄화상전공	14	인쇄경영, 디지털인쇄기술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2)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클러스터의 특성

인쇄업은 타 중소기업에 비해 일찍부터 도시에 사업체, 지원기관 등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1992년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인쇄연구소를 설립하여 업계의 실태 및 기술조사와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쇄사업체들이 원부자재 공동구매,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 핵심적인 공동사업을 통해 회원사간 혹은 회원사와 조합간 공식 비공식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형성되었다.

특히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연구소, 대한인쇄기술협회, 서울인쇄센터는 중구 쌍림동 인쇄센터 빌딩에 입주하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적

인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쇄업의 클러스터는 인적자원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및 기술적 토대를 비교적 갖추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합의 역량도 있다고 판단된다.

인쇄산업 클러스터의 발달 및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네트워킹과는 대조적으로 교육부문의 발달 및 인쇄업에 대한 지원은 미진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인근지역에 교육기관으로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인쇄관련 학과가 있고 4년제 대학과정은 없다. 전문학교 교과과정이 주로 편집 쪽으로 경사되어 있어 평판인쇄 기술 및 기계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배출인력이 인력난이 심한 인쇄기능 분야로 유입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디지털 인쇄를 교육하기에는 전문장비 및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직업훈련과정도 광고매체 및 스크린인쇄로 제한되어 있어 평판인쇄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인쇄업계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도제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인력에 대해 조합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소 기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쇄업 클러스터는 국지적 연계와 기업간의 근접성에 의한 네트워킹, 지원서비스 발달, 비공식적 정보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제조기술 이전, 거래비용 감소, 인력의 수급과 같은 단순집적의 효과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디지털정보 시대에 직면하여 인쇄업을 단순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적의 구조를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학습, 기업간 핵심기술이전, 현장과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에는 조합간, 혹은 업계와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다. 실례로 인쇄업 디지털망 구축사업에 개별 조합들이 자체 이권을 우선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4. 인쇄업의 인력양성 현황과 문제점

##### 1) 교육기관의 인력공급 미비

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현황은 업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쇄관련 교육기관 졸업생의 업계 진출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현장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2004년 2월 4개 학교(부경대, 중부대, 신구대학, 인천전문대학)의 인쇄과는 3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취업대상자 287명 가운데 138명(48%)만이 인쇄관련 업종으로

진출하였다.<sup>7)</sup> 배출인력의 대부분이 상위 교육기관으로 편입하거나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등 유사업종이나 프리프레스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배출인원 중 생산인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쇄업계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원하고 있으나 현행 전문대학 전공자의 직업능력은 현장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 졸업자의 최신장비의 운용능력과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교육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인력공급의 애로와 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회 및 조합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들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들 기관들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 2) 인쇄업계의 인력양성 사업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인력조달을 위한 기능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역시 기능인력 양성을 협회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화상정보제판협동조합은 PIN(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양성하고 있다.

인쇄연구소는 연구보고서(2003.3)를 통해 단순기능 및 전문인력의 인력난 분석 및 이의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쇄연구소와 인쇄정보기술협회는 전문인력 공급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4년 인쇄연구소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진흥사업에 ‘인쇄기능인력 양성사업’ 과제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쇄기능훈련센터를 제안하였다. 더욱이 2005년 인쇄연구소와 인쇄정보기술협회는 동국대학교와 ‘차세대 인쇄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 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제안하였고 전문인력양성은 사업의 일부분을 차지하였다.

### (1)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통해 재직자 향상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의 참여를 통해 평판인쇄(옵셋인쇄) 기능인력 양성을 계획한 적이 있다. 또한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인쇄전공 고등학생들의 직업훈련, 대학과

---

7) 대한인쇄문화협회 내부문서

의 산학 협의회 운영, 조합회원사의 기능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온라인 인쇄업종사자 구직구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양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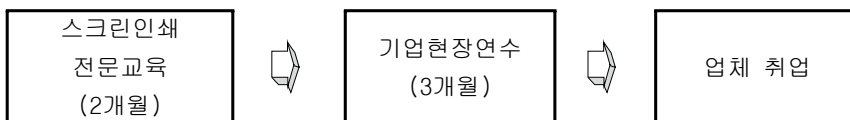
〈표 8〉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사업

인력양성	사업의 취지	세부내용
고용 장려금	.신규기능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 한 제도	.지원대상: 기능직을 신규 채용한 조합원사 .지원금액: 1년 1사 2인 (인당 월30만원/5개월 총 1.5백만원 지원) .2004년 지원현황: 40사 49명, 48.3백만원
고등학교 직업훈련	첨단 인쇄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향후 인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	.대상: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학생 20명 .연수기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인쇄기계 사업부, 칸나 베 돛판인쇄소 공장
산학연	정보교류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 회를 구성	인쇄관련 교육기관의 교수, 교사들과 정기적인 회의
재직자 향상훈련	.서울정보기능대학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참여 .조합원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교 육을 실시함	.인쇄출판, 사무지원 과정, 각 과정 20시간 .인쇄출판: 경인쇄, 옵셋인쇄, 인쇄실무, 전자출판, 컴퓨터 출판, 디지털출판, 컴퓨터출판, 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사무지원: 엑셀, 워드, 포토샵, 파워포인트, 액세스
신규양성 훈련	청년채용패키지에 참여하여 기능인 력 양성방안	.인천직업전문학교와 옵셋인쇄과정 협의
jobprint 운영	회원사의 원활한 인력수급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운영

자료 : 2005년도 기능인력 양성사업,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2) 스크린인쇄공업협회 신규양성

기능인 양성의 사례로 2005년 스크린인쇄공업협회(보조사업자)가 상계시립직업전문학 교를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살펴본다. 협회는 29세 이 하, 고졸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크린인쇄기능공의 신규양성을 시행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30명은 상계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집체교육 2개월(3월28일~5월27일), 기업 현장연수 3개월(5월28일~8월27일)을 받았고, 보조사업자는 현장 실무교육 실시 후 중 소기업에게 취업알선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스크린인쇄공업협회 신규양성

〈표 9〉 스크린인쇄과정 교육내용

구분	교육 내용
집체교육	• 스크린인쇄 및 제판에 관한 이론 및 실기 • 광고와 인쇄에 필요한 이미지 촬영기법 및 원고디자인
현장교육	• 휴대폰, PDP, LCD 등 첨단산업에서 모든 생활용품에 응용되는 스크린인쇄 실기교육

자료 : 상계직업전문학교 내부문서

(3)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의 전문기능인 양성

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은 KT와 함께 PIN(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KT는 도심의 인쇄분야를 위한 별도의 전용회선망을 구축해 편집, 프리프레스, 인쇄업체간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은 6개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쇄업계가 IT환경을 이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출판 관련 유관단체와 프리프레스 및 인쇄 장비공급업체, 재료공급업체와 연계한 입출력 장비 활용에 대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표준화 작업과 한국형 색 관리시스템의 제정(Korea Color)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데이터의 품질안정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원사간 장비 공유를 통한 전자 거래의 활성화, 조합간 협력사업, 교육기관과 연계한 기술인력의 확보, 해외수주물량의 증대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신구대학 인쇄학과와 산학연 사업을 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2005년 여름방학과 2학기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PIN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문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0〉 PIN 사업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	조합사관리
KT	전용회선, 인터넷VDSL 설치
(주)글루시스, BGI, (주)소프트매직	컨텐츠 및 부가서비스 개발
아이네트테크놀로지	전체사무 위임, 네트워크 운용, 과금관리
애플컴퓨터	장비공급
신구대학 인쇄과, BGI	전문인력양성

자료 : 프린팅코리아 2005년 2월 호, 신구대학 인쇄과 내부문서

## 3) 인쇄업계의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

인쇄업계의 각 기관들은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인력양성을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양성 사업이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지 않고 각 협회 또는 조합에 의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인천직업전문학교와 추진한 청년채용패키지는 무산되었으나 2005년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는 상계직업전문학교와 청년채용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인쇄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인쇄연구소와 한국화상정보제판협동조합은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화상정보제판협동조합은 영세한 조합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업자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여 인력양성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시행될 우려가 있다.

이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조합이나 협회가 주축이 되어 수요에 바탕을 둔 주문형 교육을 피하고 있지만 전체 인쇄업계의 인력양성을 분야별, 직종별로 수급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양성사업자를 선정하는 업계 전체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인력양성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조합의 능력과 규모에 비추어 효율적인 교육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상위의 조합이면서 체계를 갖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같은 기관이 인력양성계획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1〉 인쇄업계 기관별 인력양성계획

인력양성기관	인력양성사업	관련 주무관서
인쇄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li> <li>. 2004년 산업자원부 산업기반진흥사업에 ‘인쇄인력양성사업’ 과제 제출</li> <li>. 2004년, 2005년 서울시에 지역특화사업 과제 제출</li> <li>. 산학연 사업</li> </ul>	산업자원부
인쇄정보기술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2005년 지역특화사업 과제 제출</li> </ul>	서울시
서울인쇄정보 산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조금</li> <li>. 산학연사업</li> <li>. 고등학교 해외연수</li> <li>. 서울정보기능대학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노동부) 참여, 재직자훈련</li> <li>.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li> </ul>	노동부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청년채용패키지 보조사업자</li> <li>. 연2회 산학협력 회의</li> </ul>	중기청
한국화상정보 제판공업협동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N(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사업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양성</li> </ul>	

자료 : 각 기관 내부자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조합이나 협회는 사업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간 연계가 없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인쇄업 인력양성에 관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가 인쇄업 조합들과 정부 부처들의 개별적인 인력양성을 조정 및 총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특정 긴요한 인력양성사업은 미진하게 추진되거나, 어떤 사업들은 중복되어 추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5. 인쇄업 인력양성 방안

### 1) 인쇄업 인력양성 방향

인쇄업 인력양성 방향은 앞서 시행된 인쇄업계의 환경과 인력양성제도에 대한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산업의 현실은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고 인력양성도 단순인력에 치우치고 있다. 더욱이 단순인력 공급에 관해서도 학교 졸업생들이 기능인력 종사를 회피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기계장비의 IT화, 자동화, 일관시스템화로 인해 다기능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유연생산방식은 이들 인력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디자인과 그래픽이 중요시되고 있고 일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인쇄업은 서울시 지역혁신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과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 아래서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쇄인력 수급 실태 및 기술환경 변화 아래서 인쇄업계의 여러 기관들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중앙정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나름대로 인력양성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없고 특히 이 사업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결여되어 사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인쇄 기능인력 양성의 기본방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인쇄산업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출판및인쇄진흥법<sup>8)</sup>에 근거해 인쇄업 인적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 중앙부처와 사업을 협의하고 각 조합 및 협회가 추진하는 중앙부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인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 인쇄업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필요인력을 파악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되는 기술환경의 변화아래서 다기능 전문가, 특히 디지털인쇄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IT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공급으로 달성되는省力化는 단순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주문형 인력양성이 효율적이다.

넷째, 단순 기능인력의 공급은 3D 업종에 대한 기피 때문에 단지 양성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채용패키지와 청년실업자 채용보조금을 연계하여 기능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섯째, 인력양성에 관해 인쇄사업체가 밀집된 중구와 종로 등 도심 자치구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최근 자치구는 관내에 집적된 산업의 발전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인력양성에 관한 역할제고가 기대된다.<sup>9)</sup> 여섯째, 인쇄기능인의 신규공급도 중요하지만 재직자가 변화하는 인쇄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도 중요하다.

## 2) 인쇄업 인력양성 방안

### (1)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서울시는 효율적으로 인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인쇄산업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인쇄업계, 대학, 직업훈련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치구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고 이 협의체는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을 한다.

### (2) 인쇄업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아래서 매년 인쇄업 노동력수요조사에 근거한 직종별, 업종별로 세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력수요조사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8) 출판및인쇄진흥법 제4조는 문화관광부가 출판·문화사업의 진흥을 위해 진흥시책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흥시책은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사·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9) 최근 종로구(2005.5)는 시장개발연구원을 통해 종로 귀금속산업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실시되어 매년 세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중요한 기본통계가 되도록 한다.

(3) 주사업자 평가

인쇄산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체계에서 주사업자 선정은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인력양성 주사업자로 검토될 수 있는 유력한 조직으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조합, 대한인쇄연구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의 사업추진능력을 業歷, 조합규모, 재정능력, 인력양성의 범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았다. 이러한 평가 틀에 의하면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대조합으로 자체 인력양성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인력양성을 양성하고 있다. 조합은 1993~1999년 읍셋 인쇄와 사진제판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다. 또한 중구 쌍림동 인쇄센터 빌딩에 위치하여 동일공간에 입주한 인쇄연구소 및 인쇄정보기술협회와 협의하여 인쇄인력 양성방안에 관해 연구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2> 인쇄업계 조합 및 협회 역량분석

구 분	서울인쇄정보조합	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조합	대한인쇄기술정보협회/인쇄연구소
설립연도	1962년	1983년	1985년	1992년
회원규모	1,928사	278사	57사	101사
인력양성사업조직	인력양성위원회	없음	없음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조직
인력양성사업실적	.직업학교 운영경험 .중기직업훈련컨소시엄 .청년채용패키지 검토 .인쇄과 고등학생 연수	청년채용패키지를 활용하여 신규인력 양성	.KT, 신구대학, 민간회사와 디지털 인력양성	.산자부와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제안
재정 및 매칭펀드 능력	공동구매 및 단체수의계약으로 인해 재정수입. 매칭펀드 능력	회원사규모 미약, 재정취약	회원사규모 미약 재정취약	회원사규모미약재정취약
유관기관과의 협력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서울인쇄센터와 협조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신구대학과 산학협력	동국대학교와 전문인력 양성협의
인력양성 범위	읍셋인쇄, 제판, 편집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	스크린인쇄 분야에 제한	제판분야에 제한	
전반적 평가	조합의 규모가 크고 재정 및 추진능력 우수하고 전반적인 인력양성이 가능	조합의 규모가 적어 재정 및 추진능력 미진	조합의 규모가 적어 재정 및 추진능력 미진	사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추진주체로 미약

#### (4) 지원기관간의 연계방안

##### ○ 서울인쇄센터의 인력양성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울인쇄센터의 주 사업은 수출마케팅 지원 및 신제품 개발에 있고 인력양성 사업은 무역관련 업무교육 뿐이다. 서울인쇄센터는 사업목표에 기능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인쇄센터는 민관 협력기구로 많은 인쇄관련 유관기관들이 위치한 중구 쌍림동 인쇄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력양성 유관기관인 인쇄연구소, 조합 및 협회, 대학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서울시의 업무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 ○ 인쇄연구소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인쇄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기술 연구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원하되 인쇄연구소는 관련 대학, 장비공급업체, 현장 전문가와 협력연계하여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 ○ 산학연 포럼

현재 협회, 조합 등이 개별적으로 산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규모가 있는 산학연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서울인쇄센터 및 인쇄연구소가 인쇄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인쇄정보기술협회, 조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체 전문가, 현장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정례포럼을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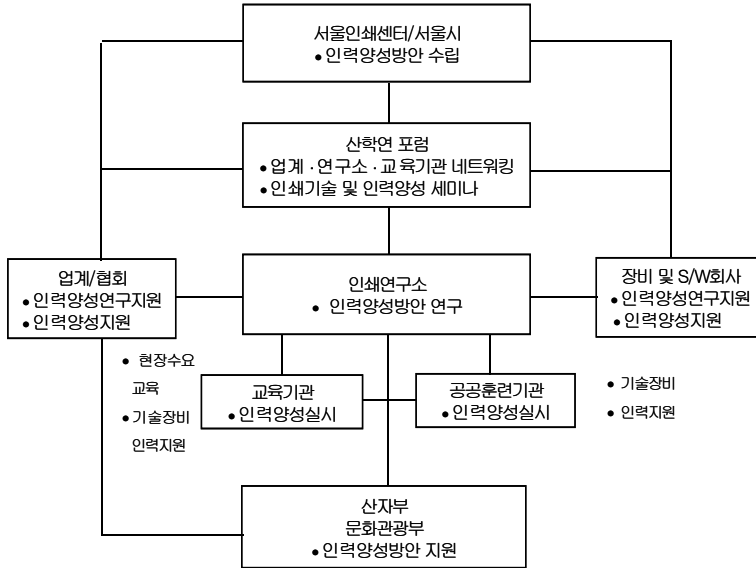
##### ○ 대학과 연계 인쇄장비 및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연계방안

전문대학이 디지털인쇄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이 업계에 유용한 인력으로 유입되도록 장학금지급, 취업연계 현장교육, 최신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제공 등 업계와의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인쇄에 있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업계와 연계되어 기술 및 인력지원을 적시에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은 경영진 및 중관관리자에게 인쇄경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쇄업이 질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공공훈련기관과 업계와의 연계방안

공공훈련기관은 현재 인쇄업이 필요로 하는 평판 인쇄기능인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인쇄업 자체가 고용보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전문성을 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학교와 업계는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업계의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의 행·재정 지원을 얻어서 교육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림 2> 인쇄업 지원기관간의 연계

(5) 직종별 세부인력양성 방안

인쇄산업 주사업자는 분야별 조합 또는 협회와 협의하여 분야별, 업종별 세부인적자원 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주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의거 분야별 조합 또는 협회와의 수요조사와 직문분석을 토대로 매년 직종별, 업종별 교육인원과 교육기관, 교육내용, 현장실습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게 한다. 세부계획은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직업훈련 참여계획을 포함한다. 주사업자는 사업자의 현장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회원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표 13〉 인쇄업 분야별, 직종별 인력양성 방안(예시)

훈련분야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대상자	비고
옵셋인쇄	서울인쇄정보조합	인천직업 상계직업	신규입직자	청년채용패키지
스크린인쇄	스크린인쇄공업협회	상계직업	신규입직자	청년채용패키지
디지털인쇄	화상정보공업조합	신구대학	전문대 기능인	KT 및 민간업체와 협조
인쇄경영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동국대학교	경영자, 관리자	산업자원부 인력양성사업 과제

### 3) 서울시의 행·재정 지원

- 서울시는 주사업자로 하여금 수요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해 직종별·교육수준별로 교육 인원을 파악한 후 훈련계획을 확정한다. 이 훈련을 먼저 중앙부처 진행사업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의해 실시될 수 없는 훈련은 서울시가 실시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과정이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실시할 수 없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공업고등학교 인쇄과 학생의 업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학금제도, 산학연계에 의한 현장훈련 강화, 졸업 후 디지털인쇄 전문교육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업계의 노동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05년 하반기 인쇄업계의 노동력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 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구대학의 인쇄학과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문학교 주문형 교육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산학연 사업기준<sup>10)</sup>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심에 위치한 중구(종로구 포함)는 인쇄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한다.
- 인쇄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쇄정보산업조합은 신규인력 양성시 조합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조합원이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인쇄공업협회 역시 청년채용패키지의 훈련수당과 청년실업고용보조금을 동시에

10) 현행 전문학교 주문형 교육 산학연사업은 서울지역 전문대학으로 제한되어 있다.

활용하여 청년층 인쇄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인쇄업체는 영세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고용보조금의 적용 또는 훈련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서울인쇄정보협동조합 등 관련 조합들은 자체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네트워크가 통합되지 않아 전체 인쇄업계의 구인·구직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개별 조합 내에서도 데이터의 집적은 전혀 안되고 있고 인력의 수급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개별 네트워크는 단지 개별조합 회원사의 구인·구직 연결에 그치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주사업자가 구인·구직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기능인력 정보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 정보는 인쇄업 인력의 수급분석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대한인쇄기술정보협회, “인력기능인력양성사업”, 2004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년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5년도 기능인력 양성사업”  
이의수, “차세대 인쇄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 동국대학교, 2005  
중소기업청, “2004년 중소기업인력실태보고서”